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며,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Weekly Strategy & Economy

안전자산 선호 경향 약화

2013. 1. 14



투자전략팀
Strategist/Economist **마주욱**
02) 3787-5025
majuok@kiwoom.com
Economist/Strategist **전지원**
02) 3787-5231
jiwon@kiwoom.com

키움증권 

CREDIT 

Contents



1. 주간 증시: 안전자산 선호 경향 약화	3
2. 국내외 주요 이슈: 안전자산이 불안하다!	4
3. 주간 경제 전망: G2 경기반등 가능성 증가	5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약세 전환	7
5. 수급동향: 충전을 위한 시간이 필요	9
6. Earnings & Valuation: 4/4분기 어닝시즌	10
7. 해외 증시 동향	11
Chart & Table	13

안전자산 선호 경향 약화

>>> 이번 주 국내 증시, 박스권 등락 예상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2,000pt 부근의 등락 예상(1,970~2030pt). 중국 4/4분기 GDP성장률 반등과 정책기대감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여건은 양호하고 글로벌 자금흐름 역시 국내 주식시장에 우호적일 것. 다만, 국내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조정 요인이 대두되면서 KOSPI는 기간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뱅가드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에 대한 우려, 그리고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등이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 안전자산이 불안하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의 완전타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포트폴리오 역시 방어적 스탠스보다는 소재 및 산업재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유리할 듯. 현재 구간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이 더 불안한 상황으로 판단. 미 국채는 최근 금리가 반등했고 금 가격 역시 고점이 낮아지면서 조정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미 국채 금리는 추가적인 반등세를 나타낼 듯.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파른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

>>> 4/4분기 어닝시즌

이번 알코아의 실적호조는 4/4분기 어닝시즌이 낮아진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상회할 가능성을 시사. 중국과 미국의 수요 증가로 알루미늄 실수요가 증가함. 또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했고, 생산비용 하락에 힘입어 마진이 역대최고 수준을 기록. 특히 순이익 증가가 마진개선뿐만 아니라 매출액 성장에 기인함. 4/4분기 어닝시즌은 글로벌리 재정절벽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매출의 완만한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의 하락이 마진개선이 예상됨.

1. 주간 증시: 안전자산 선호 경향 약화

>>> 국내증시 주간 전망

이번 주 국내 증시, 박스권 등락 예상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2,000pt 부근의 등락이 예상된다(1,970~2030pt). 글로벌 경기 여건과 글로벌 자금흐름은 국내 주식시장에 우호적일 것이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조정 요인이 대두되면서 KOSPI는 기간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뱅가드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에 대한 우려, 그리고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등이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해 4/4분기 기업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이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알코아가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웰스파고 역시 순이익이 2011년에 비해 24% 증가했다. 이에 더해 미국 주식형 펀드로 대규모 자금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마켓워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183억 달러가 주식형펀드에 유입됐고, 이는 1992년 1월 이후 네 번째로 큰 규모이다.

또한 이번 주에는 지난해 4/4분기 중국 GDP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미 월별 주요 경제지표가 지난해 9월 이후 반등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성장률의 반등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일 것이다. 지난해 3/4분기 GDP성장률이 7.4%였지만, 4/4분기 경제성장률은 7.8%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권이양 이후 정책당국이 소비지출 활성화를 위한 도시화 및 SOC투자를 강화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가 국내 주식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뱅가드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은 국내증시 수급에 부정적이다. 뱅가드는 미국 동부표준시 10일 9시 30분부터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 ETF의 벤치마크를 FTSE로 변경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25주간) 9조 2,000억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매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주당 4,000억원 규모). 다만, 뱅가드가 시장 충격을 주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과 엔화 약세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나, 문제는 환율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는데 있다. 특히, 아베 내각이 강력한 양적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환율전쟁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기여건과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엔/달러 환율이 85~92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 국내 수출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것이다.

중국 GDP 성장률 추이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



2. 국내외 주요 이슈: 안전자산이 불안하다!

>>>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의 급등과 중국 생산자물가의 반등세

미국 재정절벽 협상의 완전타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포트폴리오 역시 방어적 스탠스보다는 소재 및 산업재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구간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이 더 불안한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미 국채는 최근 금리가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2012년 이후 박스권 상단을 상당 돌파한 상황이다. 특히 2010년 이후 형성된 장기적인 하락추세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한편 금 가격 역시 고점이 낮아지면서 조정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NYMEX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은 현재 1온스당 1,660.6 달러로 2012년 고점대비 8.04% 하락한 상황이다. 이는 안전자산의 속성자체가 불안해진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의 가격이 불편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점차 위험자산의 상대적 가격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 국채 금리는 추가적인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이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 국채 금리와 TIPS 금리간의 스프레드로 측정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 마이너스 영역으로 가파른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 가격의 하락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유동성 모멘텀이 아닌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리플레이션 기대로 전환된다는 사실은 소재업종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소재업종의 실적전망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비중확대에 부정적인 근거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미 중국에서는 소재업종의 실적전망 개선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생산자물가의 반등세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글로벌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요인이 소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국 SOC 투자와 미국 주택경기 회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재 업종 역시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포트폴리오를 소재/산업재 및 구조조정이 나타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하고, 방어적 대응은 제약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US Breakeven 1 Year 추이



자료: Datastream

MSCI China Materials 12M Fwd vs 중국 PPI



자료: IBES

3. 주간 경제 전망: G2 경기반등 가능성 증가

>>> 국내 경제

2012년 12월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 개선 예상

지난해 12월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은 전월에 비해 다소나마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심리가 소폭이지만 개선됐고, 추운 날씨 등의 영향으로 의류 판매 등이 호조를 보였을 것이다. 전반적인 소비 지출 회복을 논하기 힘들지만, 글로벌 경기회복과 환율하락 등은 내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 미국 경제

'재정절벽' 우려가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생산과 투자가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주택경기 회복과 견실한 소비지출이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물론, 정부 부채한도 증액과 지출축소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이는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지수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된다.

>>> 중국 경제

2012년 4/4분기 경제성장률 반등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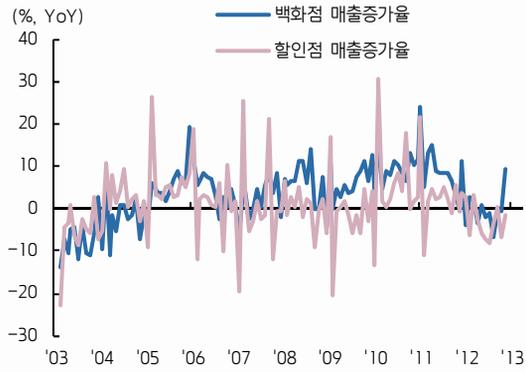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보다 확대된 7.8%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권이양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정부의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SOC투자 활성화) 등에 힘입어 소비 및 투자 증가율이 반등에 성공했다. 이에 더해 수출 역시 다소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14~1.18)

날짜	국가	경제지표	대상	중요도	전망치	이전치
1월 14일	유럽	산업생산(YoY)	11월	B	-3.1%	-3.6%
1월 15일	미국	소매판매(MoM, SA)	12월	A	0.2%	0.3%
	유럽	그리스 국채입찰				
		스페인 국채입찰				
1월 16일	미국	산업생산(MoM, SA)	12월	B	0.2%	1.1%
		소비자 물가지수(MoM, SA)	12월	B	0.0%	-0.3%
		MBA 모기지 신청지수(WoW, SA)	1월 2주	B	NA	11.7%
	유럽	유로존 CPI(MoM)	12월	B	0.3%	-0.2%
1월 17일	미국	독일 국채입찰				
		건축허가건수(SAAR)	12월	B	904K	899K
		주택착공건수(SAAR)	12월	B	890K	861K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SA)	1월	B	5.6	8.1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SA)	1월 2주	B	368K	371K
1월 18일	유럽	스페인 국채 입찰				
1월 18일	한국	백화점매출	12월	C	NA	9.1%
		할인점매출	12월	C	NA	-1.7%
	중국	실질GDP(YoY)	4Q	A	7.8%	7.4%
		산업생산(YoY)	12월	B	10.2%	10.1%
		소매판매(YoY)	12월	B	15.1%	14.9%
		고정자산투자(YTD YoY)	12월	B	20.7%	20.7%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1월 p	B	75.0%	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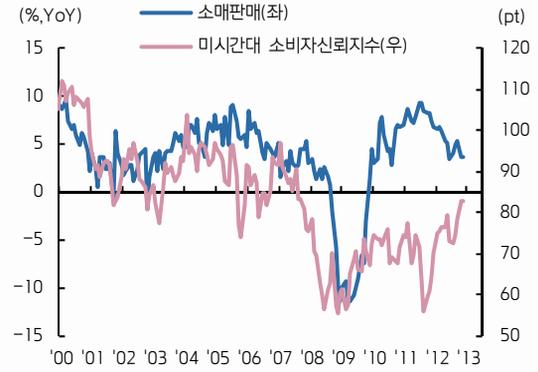
주 '중요도'는 경제지표의 영향력을 표시한 것으로, A는 경제전망에 큰 도움이 되는 핵심 변수를 지칭.

국내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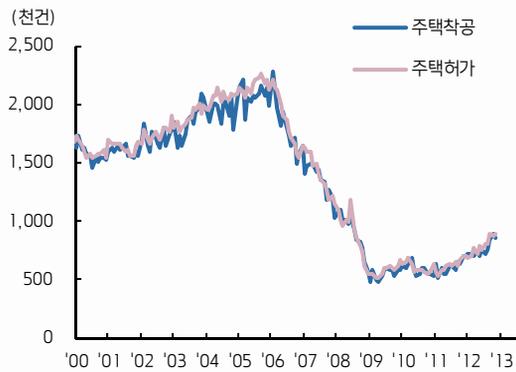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미국 소매판매 및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U.S. Census Bureau

미국 건축허가 건수 및 신규주택착공 건수



자료: U.S. Census Bureau

미국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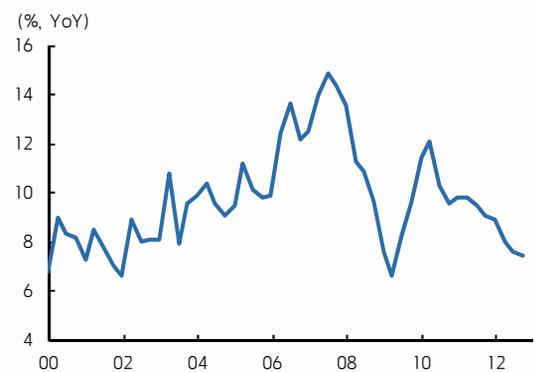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Labor

미국 필라델피아연준 제조업지수 및 ISM 제조업지수



자료: Philadelphia Federal Reserve,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중국 GDP 성장률 추이



자료: 중국 통계청, CEIC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약세 전환

>>> 지난 주 동향

달러화, 유럽중앙은행(ECB) 금리인하 가능성 일축으로 약세

지난 주 달러지수는 전주대비 1.16% 하락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확산됐다. 또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함에 따라 유로화 강세가 진행됐다. 이에 더해 주말 이탈리아 국채입찰이 호조가 유로화 강세 폭을 확대시켰다. 주 초반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루머가 있었지만, 유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

한편, 엔화의 약세가 이어졌다. 지난 한주간 엔/달러 환율은 1.17% 추가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적자, 일본은행(BOJ)의 물가 목표치 상향조정 가능성, 10조 3,00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 등이 엔화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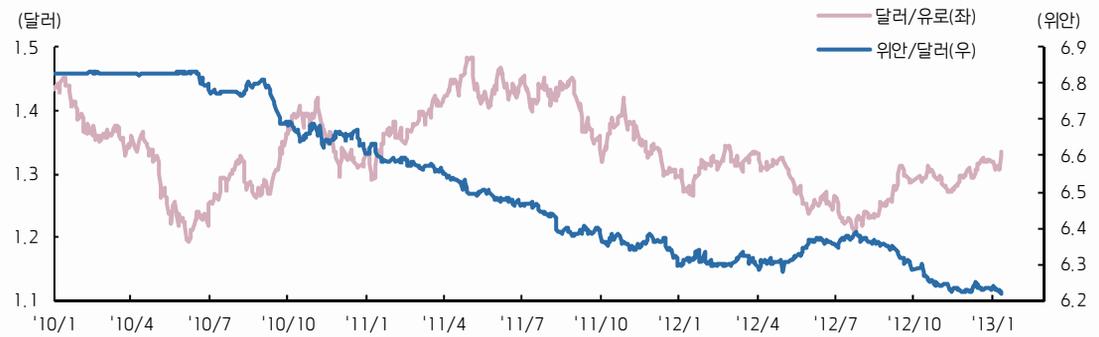
지난 주 원/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0.85% 하락한 1,054.69원에 장을 마감했다.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 유입과 금통위의 금리동결 등의 영향으로 1,060원선이 붕괴됐다. 외환당국에 대한 경계와 매수 개입, 그리고 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 부진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환율하락 추세를 저지하지 못했다.

아시아 통화지수 및 달러지수



자료: Datastream

유로화 및 위안화



자료: Datastream

>>> 이번 주 전망

원/달러 환율, 1,040~1,070원 중심 등락 예상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1,040~1,070원 중심의 등락이 이어질 전망이다.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규제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달러화 하락 압력을 막을만한 단기적인 변수는 많지 않다. 결제수요와 역외 NDF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등이 추가적인 달러화 하락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정도이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040~1,070원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환율 변동률

	전주 말 1월 11일	1주 전 대비(%)	12월 말 대비(%)	2012년 말 대비(%)	1월 4일	12월 말	6개월 전	2012년 말
달러/유로	1.3343	2.10	1.11	1.14	1.3069	1.3193	1.2239	1.3193
엔/유로	119.01	3.30	3.98	3.98	115.21	114.46	97.58	114.46
엔/달러	89.18	1.17	2.80	2.96	88.15	86.75	79.76	86.62
위안/달러	6.2158	-0.24	-0.24	-0.24	6.2306	6.2306	6.3686	6.2306
원/달러	1,054.69	-0.85	-0.91	-0.91	1,063.68	1,064.40	1,140.90	1,064.40
원/100엔	1,182.62	-1.99	-3.62	-3.62	1,206.66	1,228.82	1,432.61	1,227.05
대만 달러/달러	28.95	-0.23	-0.28	-0.28	29.02	29.03	29.94	29.03
스위스 프랑/달러	0.9135	-1.20	-0.21	-0.21	0.9246	0.9154	0.9811	0.9154
달러/호주 달러	1.0535	0.52	1.46	1.36	1.0480	1.0394	1.0251	1.0394
달러지수	79.56	-1.16	-0.26	-0.26	80.50	79.77	83.57	79.77

자료: Datastream

원/달러 환율 vs 엔/달러 환율



자료: Datastream

5. 수급동향: 충전을 위한 시간이 필요

국내 수급, 프로그램 매물전환과 펀드 환매 부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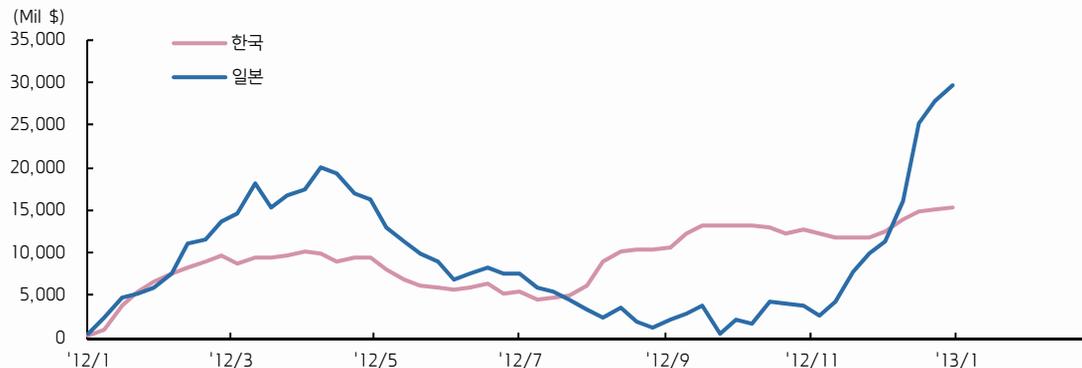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단기적인 수급상황은 다소 부담스럽다. 우선 연말 배당을 확정한 프로그램 거래가 매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관련한 매수차익잔고는 사상최고치 수준이다. 또한 차익실현성 주식형 펀드 환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유입 재개는 시중 유동성의 팽창(M2 증가율의 상승)과 KOSPI 전고점 돌파에 힘입어 기대 수익률의 높아지는 시점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수급여건의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 매수강도 점화를 위한 조건은?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점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절벽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연초 재정절벽 협상은 세입측면에서의 타결이었다. 지출에 대한 협상이 지연될 경우 미 국채 신용등급 하락여부에 대한 우려가 자극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미 국채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보유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매도를 통해 오히려 미 국채 보유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는 미 국채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보다 안전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 8월 5일 미 국채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이 발생하자,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해외 주식비중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미 국채 보유비중을 늘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미 국채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고 달리는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 주식시장은 S&P 500 지수가 10.8% 하락한 수준에서 저점을 형성했지만, KOSPI는 18.1% 하락한 수준에서 저점이 형성되었다. 즉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미 국채 신용등급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위험자산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부담일 것이다.

또한 엔/달러 환율 반등세가 진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는 자동차 업종에 국한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증시에 대한 매수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주식에 대한 외국인 매수규모가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는 제한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12월 들어 일본 대비 18.5% 비율(한국: 32억 9,900만 달러, 일본: 177억 8,700만 달러)을 기록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강도가 1월 첫째 주에 15.6%의 비율(한국: 3억 1,700만 달러, 일본: 20억 2,800만 달러)로 낮아졌다는 엔/달러 환율 반등에 따른 상대적 매력측면이 고려되었다는 판단이다.

일본 vs 한국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자료: Datastream

6. Earnings & Valuation: 4/4분기 어닝시즌

>>> 낮아진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킬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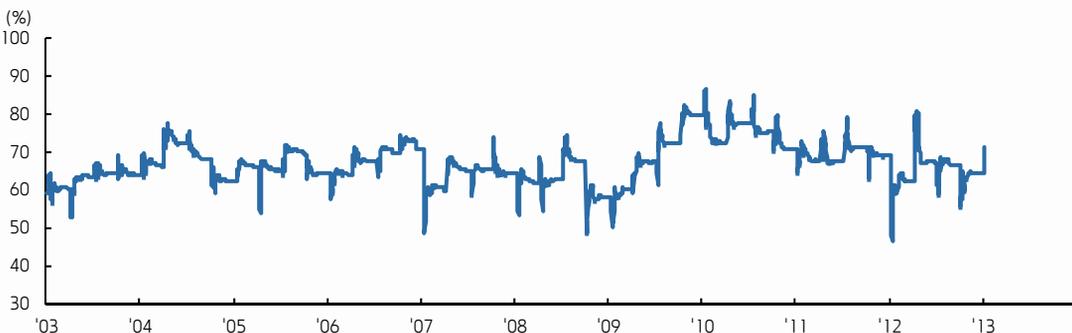
알코아의 실적호조는 4/4분기 어닝시즌이 낮아진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상회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알코아의 4/4분기 매출은 59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56억 달러를 상회했다. 당기순이익은 2억 4,200만 달러로 전년동기 1억 9,100만 달러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중국과 미국의 수요 증가로 알루미늄 실수요가 늘어난 데다 투자 수요로 인한 거래소 구리 재고도 감소하며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했고, 생산비용 하락에 힘입어 마진이 역대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실적호조를 견인했다. 특히 순이익 증가가 마진개선뿐만 아니라 매출액 성장에 기인했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다. 4/4분기 어닝시즌은 글로벌리 재정절벽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매출의 완만한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의 하락이 마진개선이 예상된다.

주요 지역 및 증시 EPS 추정치 변화율

구분	지역 및 국가	12개월 Forward 기준				2012년 실적전망 기준			2013년 실적전망 기준			PER
		1W	1M	3M	6M	1M	3M	6M	1M	3M	6M	
대륙	AC World	-0.4	-0.4	-1.4	-1.5	-1.2	-2.9	-5.5	-1.5	-4.2	-6.9	12.3
	AC Asia-Pacific	0.9	-0.7	-2.4	-3.5	-2.0	-8.1	-12.3	-2.2	-5.5	-9.0	12.3
	AC Asia-Pac. Ex. JP	1.1	0.5	1.6	0.0	-0.6	-1.3	-4.2	-0.5	-1.4	-5.9	11.8
	AC Americas	-1.7	-1.2	-1.9	-1.9	-1.8	-2.8	-4.6	-2.2	-4.7	-7.6	13.0
	AC Europe	1.0	1.2	0.6	1.1	0.6	0.8	-1.7	0.3	-2.0	-3.8	10.9
선진 시장	World	-0.7	-0.7	-1.7	-1.7	-1.3	-3.0	-5.4	-1.8	-4.5	-7.2	12.6
	G7	-1.0	-1.0	-2.1	-2.2	-1.6	-3.3	-5.6	-2.1	-4.9	-7.6	12.5
신흥 시장	Emerging Market	1.2	1.3	0.5	0.0	0.0	-2.6	-6.3	0.5	-2.2	-5.1	10.5
	Emerging Market Asia	1.3	1.1	2.5	1.9	-0.4	-1.5	-5.0	0.0	-0.8	-4.6	10.9
아시아 태평양 (8)	KOREA	1.9	1.0	2.4	2.9	-1.6	-2.9	-7.3	-0.6	-1.7	-4.4	8.5
	JAPAN	2.4	2.5	0.3	-2.2	0.3	-12.3	-20.5	0.1	-3.1	-7.1	13.2
	CHINA	0.9	0.8	1.3	-2.7	-0.4	-1.6	-6.5	-0.2	-1.1	-7.6	9.9
	INDIA	1.1	1.0	0.8	0.9	-0.3	-3.0	-6.0	-0.1	-2.3	-5.3	14.2
	TAIWAN	0.8	1.2	4.2	0.2	-0.3	-2.3	-9.5	-0.1	-0.2	-9.0	14.2
	SINGAPORE	0.9	0.6	-1.4	-2.1	0.1	-1.0	-0.9	-0.1	-3.0	-6.4	13.8
	HONG KONG	1.0	0.6	2.0	3.1	-0.2	-0.4	-2.5	-0.3	-0.7	-2.5	15.1
	AUSTRALIA	0.7	0.1	-1.0	-6.9	-0.4	-3.4	-3.7	-0.8	-3.3	-1.5	13.2
아메리카 (4)	USA	-2.0	-1.5	-1.9	-1.9	-1.9	-2.5	-4.0	-2.5	-4.7	-7.5	13.1
	CANADA	-0.1	0.3	1.4	-1.0	-0.3	-0.9	-5.2	-0.7	-1.5	-7.1	12.9
	BRAZIL	0.8	-1.1	-6.3	-7.4	-3.4	-11.4	-17.9	-1.9	-9.3	-12.3	10.5
	MEXICO	0.7	1.0	1.7	2.2	0.2	2.1	-2.9	-0.1	-1.9	-4.3	17.3
유럽 (5)	UK	0.4	-0.1	-1.2	-5.7	-0.4	-1.2	-7.6	-0.8	-3.5	-10.0	10.7
	FRANCE	0.9	0.1	-1.3	-2.4	-0.4	-1.0	-5.0	-0.8	-3.8	-7.3	10.9
	GERMANY	1.1	0.8	-1.1	-2.0	0.1	7.1	5.2	-0.2	-3.9	-7.6	10.8
	ITALY	1.1	0.3	-3.4	-8.0	-0.7	-4.3	-10.8	-0.9	-6.4	-13.8	9.4
	RUSSIA	-0.5	1.2	-0.9	-0.3	0.1	-1.7	-3.6	1.9	-0.1	2.6	5.1

자료: IBES

S&P 500 Positive Surprise Index 추이



자료: Datastream

7. 해외 증시 동향

>>> 지난 주 다우지수, 0.40% 상승

중국 수출지표 호조와 알코아 호실적으로 상승

지난주 미 증시는 소폭 마감했다. 중국 수출 지표 호조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알코아의 4분기 실적은 지수 상승에 호재로 작용하였다. 다만, 미국의 채무 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지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어닝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알코아의 실적은 양호하였고 알코아는 올해 알루미늄 수요 전망치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여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487억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적자폭을 기록하였고 이는 연말 대목을 앞둔 수입 상품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집행이사들 간에 이견이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 되었으나, 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이루어졌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올해에도 취약하겠지만 연말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금리 하락과 은행권 예금 증가 등을 주목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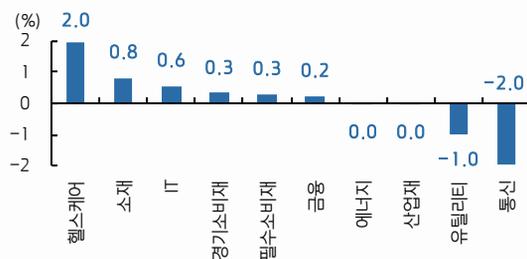
>>> 지난 주 상하이 종합지수, -1.49% 하락

주도주 중심의 조정으로 지수 하락

지난주 중국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2290pt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했으며 주도주 중심의 조정은 이어졌다. 특히, 금융주와 SOC설비투자 관련 업종들의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에 더해 11일 발표되었던 CPI(2.5%)는 급등과 석유화학(-6%)과 증권업(-21%)의 2012년 실적이 부정적인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다만, 수출입 증가율이 호전되었고 3월 전년대 이전 진행되는 각 부처의 공작회의를 통해 정책기대감이 확대된 신홍산업 및 전력망 그리고 IT 등의 업종들의 강세가 하락 폭을 제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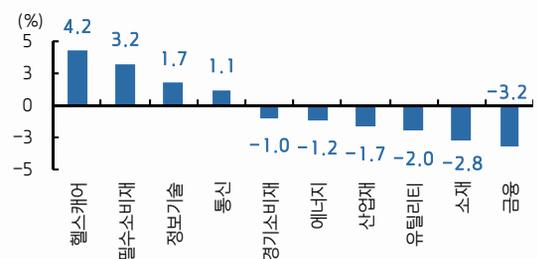
12월 수출 증가율은 14.1%, 수입 증가율은 6.0%를 기록하며 큰 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미국(10.3%), 유럽(2.3%) 그리고 아세안(27.8%) 지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개선된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반면, CPI는 채소가격과 돈육가격의 상승과 계절적 요인으로 전년대비 2.5%를 기록하며 0.5%pt 급등했다. 한편, 중국의 철도부와 에너지국은 공작회의를 진행했다. 철도부는 2013년 철도건설을 위해 6,500억 위안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에너지국은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원자력 및 태양광 그리고 풍력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S&P 5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심호 3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KIWOOM 

ONLINE NO.1 KIWOOM SECURITIES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Chart & Table

>>> 증시 주요지표

거래소 시장

구분			1/7	1/8	1/9	1/10	1/11	
가격 지표	KOSPI		2,011.25	1,997.94	1,991.81	2,006.80	1,996.67	
		등락폭	-0.69	-13.31	-6.13	+14.99	-10.13	
		(시가)	2,012.15	2,003.22	2,001.98	1,993.87	2,017.38	
		(고가)	2,014.00	2,009.99	2,007.72	2,008.47	2,017.92	
		(저가)	1,996.47	1,997.91	1,989.48	1,988.04	1,984.16	
		대형주 지수	2,003.81	1,988.03	1,979.98	1,996.10	1,983.65	
		중형주 지수	2,122.63	2,120.71	2,124.92	2,132.78	2,135.03	
		소형주 지수	1,324.98	1,326.87	1,331.30	1,338.02	1,341.62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393 (10)	370 (12)	379 (9)	473 (12)	372 (9)	
		하락 (하한가)	398 (11)	430 (11)	429 (11)	308 (3)	444 (0)	
		이동평균	(5일)	2,014.15	2,014.33	2,006.47	2,003.95	2,000.89
			(20일)	1,986.38	1,988.93	1,991.04	1,993.50	1,995.47
	(60일)		1,939.13	1,939.96	1,940.93	1,942.16	1,943.34	
	(120일)		1,927.65	1,929.19	1,930.64	1,932.18	1,933.86	
	이격도	(5일)	99.86	99.19	99.27	100.14	99.79	
(20일)		101.25	100.45	100.04	100.67	100.06		
투자심리	(%)	60	50	50	50	40		
거래량 지표	시가총액	(십억원)	1,162,610	1,155,326	1,151,635	1,160,896	1,155,005	
	거래량	(천주)	536,219	493,727	607,580	500,778	467,209	
		이동평균 (5일)	414,620	452,780	501,480	503,433	521,103	
		이동평균 (20일)	415,364	415,422	428,535	432,902	437,884	
		거래대금	(십억원)	4,009	3,992	4,027	4,557	4,364
	이동평균 (5일)		4,530	4,669	4,582	4,275	4,190	
	이동평균 (20일)		4,450	4,442	4,409	4,416	4,450	
	매매 주체별 순매수		개인 (억원)	256	784	1,311	435	1,680
외국인 (억원)		-334	459	105	14	-104		
기관 (억원)		143	-1,128	-1,324	-423	-1,565		
일반법인 (억원)		-51	-105	-74	15	-37		
프로그램매매 (억원)	1,177	1,044	-944	-1,265	-2,289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코스닥 시장

구분			1/7	1/8	1/9	1/10	1/11	
가격 지표	KOSDAQ		508.72	509.01	511.94	514.48	515.42	
		등락폭	+3.88	+0.29	+2.93	+2.54	+0.94	
		(시가)	507.79	509.22	510.48	514.21	516.91	
		(고가)	509.03	510.85	513.18	514.72	517.37	
		(저가)	505.95	508.54	510.48	512.03	512.77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529 (10)	436 (12)	483 (7)	508 (5)	451 (11)
		하락 (하한가)	390 (0)	481 (1)	421 (0)	408 (1)	469 (1)	
		이동평균	(5일)	502.11	504.65	506.72	509.80	511.91
	(20일)		490.36	490.98	492.18	493.44	494.73	
	(60일)		503.75	503.33	502.95	502.53	502.30	
	(120일)		500.70	500.90	501.14	501.42	501.78	
	이격도	(5일)	101.32	100.86	101.03	100.92	100.68	
		(20일)	103.74	103.67	104.02	104.26	104.18	
	투자심리	(%)	60	70	80	80	90	
	거래량 지표	시가총액	(십억원)	111,570	111,674	112,319	112,899	113,098
거래량		(천주)	416,030	431,557	501,716	432,196	435,553	
		이동평균 (5일)	375,161	395,670	427,507	436,261	443,410	
		이동평균 (20일)	346,980	347,030	354,024	357,347	364,010	
		거래대금	(십억원)	1,827	1,765	1,881	1,826	2,045
이동평균 (5일)			1,699	1,750	1,823	1,839	1,869	
이동평균 (20일)			1,624	1,605	1,598	1,591	1,619	
매매 주체별 순매수			개인 (억원)	-132	-168	-549	-197	136
	외국인 (억원)	3	90	39	51	-84		
	기관 (억원)	186	81	481	135	-9		
	일반법인 (억원)	-59	-14	28	4	-38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증시 자금동향

역내 펀드 자금유출입

	12년 말	주간증감	1/7	1/8	1/9	1/10
고객예탁금		176,731	174,248	177,354	180,117	176,731
(증감)	-200	-3,586	-2,484	+3,106	+2,763	-3,586
신용융자 (거래소)		22,121	22,388	22,432	22,584	22,121
(증감)	+579	+115	+268	+44	+152	+115
신용융자 (코스닥)		17,238	17,317	17,382	17,463	17,238
(증감)	+336	+112	+79	+65	+81	+112
미수금		39,359	39,705	39,814	40,047	39,359
(증감)	+915	+227	+346	+109	+233	+227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731,171	732,441	732,118	732,043	731,171
(증감)	+656	-216	+1,271	-323	-76	-216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Index펀드 포함)		647,459	648,332	648,015	647,673	647,459
(증감)	-595	-809	+873	-316	-342	-809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Active)		492,261	492,260	491,589	491,156	492,261
(증감)	-2,120	-1,014	-1	-672	-433	-1,014
국내 사모 주식형 수익증권		83,711	84,109	84,103	84,370	83,711
(증감)	+1,252	+593	+398	-7	+267	+593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		282,572	282,251	281,909	283,367	282,572
(증감)	+520	-275	-321	-342	+1,458	-275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1,668	1,845	1,706	1,645	1,668
(증감)	+237	+260	+177	-139	-61	+260
해외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26,115	26,088	26,066	26,034	26,115
(증감)	-100	-19	-27	-22	-33	-19
채권혼합형 수익증권		99,325	99,254	99,193	99,067	99,325
(증감)	-963	-705	-71	-61	-126	-705
채권형 수익증권		191,100	191,083	191,101	191,166	191,100
(증감)	-1,231	-1,297	-17	+18	+65	-1,297
MMF		472,836	472,016	472,950	473,849	472,836
(증감)	+3,521	+2,508	-820	+934	+899	+2,508

자료: 자산운용협회, 제로인, 키움증권

>>> 외국인/기관 주간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KOSPI)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한국전력	1,043	현대모비스	1,444
2	하나금융지주	875	LG디스플레이	834
3	OCI	596	삼성전자	738
4	현대건설	555	기아차	686
5	KODEX 200	299	엔씨소프트	627
6	POSCO	295	삼성중공업	286
7	SK하이닉스	295	삼성화재	254
8	신한지주	294	LG전자	247
9	KT&G	290	KODEX 레버리지	183
10	현대중공업	287	한미약품	173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외국인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다음	407	성광벤드	138
2	CJ오쇼핑	96	서울반도체	57
3	진성티이씨	43	메디톡스	37
4	동서	32	YG엔터테인먼트	37
5	G5홀쇼핑	30	네오위즈게임즈	32
6	유진테크	28	실리콘웍스	32
7	골프존	23	코미팜	30
8	메가스터디	20	덕산하이메탈	29
9	위메이드	17	제이콘텐트리	27
10	바이오랜드	16	하이록코리아	27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기관 (KOSPI)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현대모비스	493	삼성전자	1,215
2	KODEX 인버스	376	하나금융지주	665
3	현대차	350	KODEX 레버리지	624
4	호남석유	331	TIGER 200	450
5	한국타이어	280	KODEX 200	431
6	한국가스공사	244	SK이노베이션	430
7	고려아연	243	S-Oil	424
8	락앤락	242	현대건설	392
9	한진해운	218	LG화학	390
10	한미약품	189	현대제철	385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기관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YG엔터테인먼트	252	멜파스	311
2	서울반도체	192	다음	276
3	CJ E&M	161	인터플렉스	67
4	파라다이스	130	플렉스컴	56
5	메디톡스	123	에스엠	53
6	게임빌	113	골프존	46
7	덕산하이메탈	105	성우하이텍	39
8	이녹스	94	위메이드	38
9	테라세미콘	69	STS반도체	33
10	씨티씨바이오	64	진성티이씨	30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Technical Approach

전고점 돌파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증가	KOSDAQ	전일 증가
쌍용차	6,440	동진세미켈	4,920
대상	31,850	리훅	3,025
종근당	42,600	바이오니아	11,650
대웅제약	50,900	인프라웨어	10,500
STX팬오션	5,220	나노스	18,700
한국전력	33,650	크리스탈	8,120
CJ	129,000	동국제약	24,600
한미약품	140,500	우전앤한단	7,390
한솔제지	10,650	에프티이앤이	3,850
웅진케미칼	785	한글과컴퓨터	21,300

주: 전일 증가가 3개월 이내 최고종가인 종목 중 주가등락률 상위 종목

이격 확대종목 (단위: %)

KOSPI	이격도	KOSDAQ	이격도
알앤엘바이오	88	멜파스	82
에스엘	89	평화정공	90
현대모비스	91	인터플렉스	90
세아베스틸	91	성우하이텍	91
현대위아	92	포스코엔텍	93
넥센타이어	92	신양	94
효성	92	네오위즈인터넷	94
엔씨소프트	93	인터로즈	95
한성	93	유니슨	95
한일화학	93	크레듀	95

주: 20일 이격도 기준 이격확대(이격도 98% 이하) 상위 종목

Stochastic Slow 신호 발생종목 (단위: %)

KOSPI	Slow %K	KOSDAQ	Slow %K
고려아연	25	큐렉소	22
		메가스터디	22
		에버다임	21

주: Slow %K가 20% 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

외국인 지분을 확대종목 (단위: %)

KOSPI	외국인 지분율	KOSDAQ	외국인 지분율
없음		신화인터텍	7.65
		윈스테크넷	7.02

주: 20 거래일 대비 외국인 지분율 3% 이상 확대 종목

상한가 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증가	KOSDAQ	전일 증가
없음		없음	

주: 최근 10일 중 첫 상한가 기록 종목

단기 골든크로스 발생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증가	KOSDAQ	전일 증가
한일건설	980	사파이어Tech	30,600
신일건설	1,355	하이비전시스템	3,680
아세아제지	16,000	통텍	17,950
건설화학	20,550	레드캡투어	14,850
대현	1,155	코텍	11,900
쌍용양회2우B	16,950	동양이엔피	14,650
대한방직	21,100	예당	2,065
NI스틸	1,805		
조광피혁	19,900		
삼화전기	3,145		

주: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종목 중 주가등락률 상위 종목

거래 급증종목 (단위: %)

KOSPI	거래증가율	KOSDAQ	거래증가율
쌍용차	388.10	동진세미켈	878.61
알진디스플	357	중앙백신	768.25
대웅제약	246	하이비전시스템	486.59
대상	156	진성티이씨	445.83
롯데제과	155	시노펙스	378.33
동양기전	144	SM C&C	368.74
웅진에너지	142	상보	354.76
한전기술	121	나노스	347.50
종근당	106	에스에이엠티	339.73
STX팬오션	79	에스엠	325.93

주: 전일 3% 이상 주가 상승 종목 중 20일 평균대비 50% 이상 거래증가 종목

기관 매수세 유입 종목 (단위: %)

KOSPI	주가 등락률	KOSDAQ	주가 등락률
CJ대한통운	5.39	다음	6.62
농심	4.82	플랜티넷	6.02
제일기획	4.28	케이엠더블유	4.64
LG생명과학	4.08	메디톡스	4.33
유한양행	3.42	엘비세미콘	3.73
녹십자	2.97	YG엔터테인먼트	3.73
SK텔레콤	2.33	코나아이	3.41
쌍용양회	2.24	포스코 ICT	3.35
대원강업	2.16	솔브레인	2.76
LG유플러스	1.99	유아이디	2.23

주: 최근 10일 중 7일 이상 기관 순매수 유입 종목 중 등락률 상위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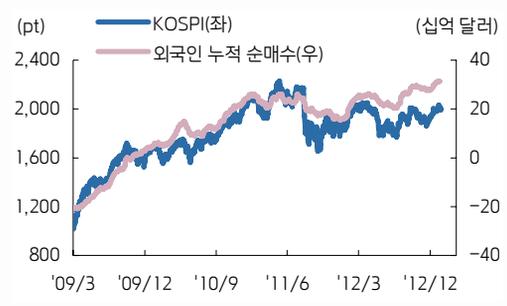
>>> 아시아 증시 외국인 및 Global Fund Flow 동향

외국인, 지난 주 매수 우위 (단위: Mil \$, %, pt)

	대표지수 동향		외국인 순매수 금액				
	1월 11	동락률	1월 4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누적
한국	1,996.67	-0.5	80.7	115.1	2,566.7	1,826.5	10,303.1
대만	7,819.15	0.1	-208.6	-246.0	801.2	1,727.2	5,996.0
인도	19,663.64	0.0	228.2	780.7	4,559.9	8,701.4	16,374.0
태국	1,412.06	0.4	92.4	135.8	781.0	428.1	439.8
필리핀	6,051.75	0.6	30.6	428.5	726.2	799.8	1,221.1
인도네시아	4,305.91	-0.3		132.5	382.7	83.1	1,529.8
일본	10,801.57	1.4	-	2,028.4	18,402.2	29,140.8	22,1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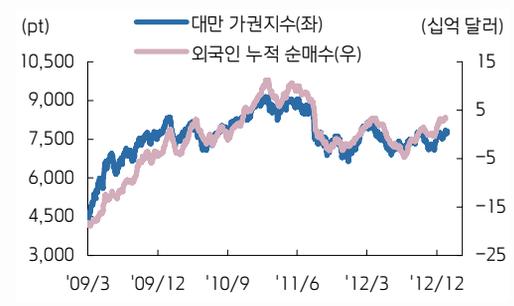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키움증권 주: 외국인 순매수 금액 일본 1주 지연 데이터, 인도 1일 지연 데이터

한국 증시(KOSPI)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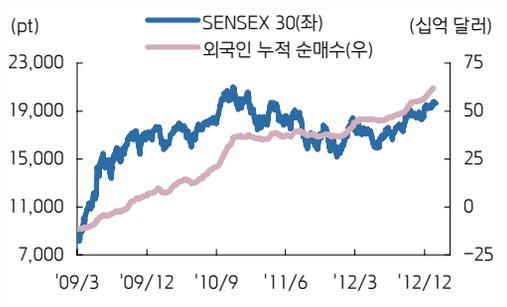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대만 증시(TWSE)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인도 증시(SENSEX)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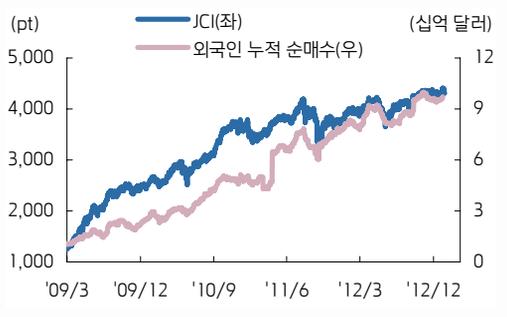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태국 증시(SET)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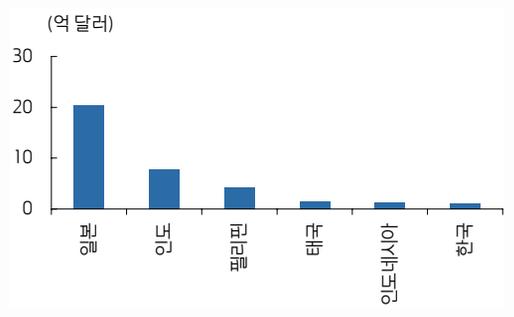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인도네시아(JCI) vs 외국인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지난주 아시아 증시 외국인 매매 동향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MSCI 주요 지역별 실적전망 변화

세계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의료, 산업재, 필수소비재 업종 하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0.4	-0.4	-1.4	-1.5	-1.2	-2.9	-5.5	-13.8	-18.2	-15.1	-27.7	12.3
에너지	-0.8	-0.1	-3.0	-5.1	-0.6	-2.3	-6.2	-4.1	-28.3	-25.9	-54.6	10.0
소재	0.7	-1.0	-4.1	-12.4	-2.2	-8.4	-20.4	-25.8	-43.6	-32.7	-55.1	12.4
산업재	-0.7	-1.4	-4.6	-3.9	-2.1	-5.9	-7.4	-9.1	-30.9	-29.0	-25.3	13.0
경기소비재	-0.1	-0.2	-2.0	-0.1	-1.3	-5.5	-6.5	1.9	-17.0	-16.2	-17.2	13.5
필수소비재	-0.6	0.0	0.7	3.3	-0.9	-1.5	-1.3	-1.0	-14.9	-0.5	-12.3	15.6
의료	-1.1	-0.8	-0.5	1.0	1.1	1.0	1.0	0.7	-2.2	-6.0	-7.6	13.1
금융	0.2	0.4	1.0	2.2	-1.2	-2.5	-3.6	-2.4	-2.8	1.2	-22.7	10.9
IT	-1.5	-2.2	-2.5	-3.6	-3.1	-2.9	-6.9	-4.3	-8.6	-22.7	-39.9	12.5
통신서비스	1.0	4.2	15.1	35.6	3.2	11.2	25.2	-5.7	-33.3	-11.6	-12.8	12.1
유틸리티	0.0	2.0	3.2	4.8	3.2	5.1	4.0	-3.7	-10.4	-6.7	-18.5	14.0

한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필수소비재, 의료, 산업재 업종 하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1.9	1.0	2.4	2.9	-1.6	-2.9	-7.3	-5.7	-31.1	-25.8	-22.4	8.5
에너지	0.7	0.3	0.5	-5.6	-0.3	-7.7	-25.4	33.3	33.3	0.0	-66.7	8.6
소재	0.4	-3.3	-12.5	-17.0	-6.2	-17.6	-27.2	-22.2	-54.5	-46.2	-28.6	10.2
산업재	-3.9	-19.9	-19.3	-20.5	-18.4	-17.2	-21.5	-17.4	-29.2	-20.8	-7.1	11.5
경기소비재	1.4	1.2	-2.1	5.6	0.6	-4.2	1.0	8.3	-33.3	-33.3	-25.0	6.5
필수소비재	12.5	13.1	6.5	7.6	0.8	-6.0	-8.7	-40.0	-40.0	-33.3	0.0	14.6
의료	13.3	1.3	-6.1	1.2	-1.7	-14.6	-15.9	50.0	-50.0	50.0	0.0	19.7
금융	0.7	0.2	-6.8	-11.8	-0.6	-6.4	-9.2	-5.0	-55.0	-30.0	-20.0	7.8
IT	1.1	3.6	15.1	17.6	0.9	7.4	2.1	25.0	37.5	-62.5	-75.0	8.6
통신서비스	0.3	0.5	5.6	5.8	-2.1	-1.2	-14.8	0.0	33.3	-33.3	-33.3	8.6
유틸리티	7.1	2.1	53.7	34.1	10.9	26.7	3166.3	-50.0	-100.0	-50.0	0.0	21.3

미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산업재, 경기 및 필수소비재, 의료, IT 업종 하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2.0	-1.5	-1.9	-1.9	-1.9	-2.5	-4.0	-6.3	-11.7	-3.2	-37.1	13.1
에너지	-1.9	-0.9	-4.3	-6.3	-1.6	-2.8	-5.3	3.6	-45.5	-25.5	-70.9	11.5
소재	-0.4	-2.2	-4.1	-5.9	-3.5	-6.9	-14.3	-23.5	-11.8	-20.0	-54.3	13.2
산업재	-1.9	-0.8	-3.0	-3.3	-1.4	-3.1	-5.0	-11.0	-28.8	-18.7	-49.3	13.3
경기소비재	-1.9	-1.2	0.0	1.4	-1.9	-1.2	0.0	4.0	-5.0	-14.3	-24.5	15.4
필수소비재	-2.5	-1.3	0.5	1.8	-2.2	-1.7	-2.6	-4.3	4.3	26.1	-8.7	15.1
의료	-2.2	-1.5	-1.1	-0.4	2.0	2.5	1.5	-3.4	-11.9	-6.9	-15.5	13.0
금융	-1.0	0.2	1.6	3.0	-2.5	-4.8	-4.7	-15.4	-4.8	27.6	-28.4	11.7
IT	-2.6	-3.6	-5.5	-6.7	-4.0	-3.6	-6.7	-8.3	-4.8	-12.9	-56.5	12.4
통신서비스	-1.4	-1.0	4.5	9.8	-3.2	0.7	-3.0	0.0	-10.0	-20.0	-27.3	17.7
유틸리티	-2.4	0.5	-1.3	-1.7	0.6	-0.6	-1.1	-2.9	0.0	18.2	-30.3	14.6

중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유틸리티, 산업재 업종 상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전체	0.9	0.8	1.3	-2.7	-0.4	-1.6	-6.5	7.5	-27.4	-25.5	-46.9	9.9
에너지	0.5	0.3	0.3	-7.1	-0.8	-0.3	-9.7	11.1	-11.1	-55.6	-88.9	9.9
소재	1.1	1.2	1.6	-16.8	-0.8	-8.8	-33.6	15.8	-31.6	-61.9	-72.7	10.6
산업재	1.9	0.5	-1.5	-9.7	-0.8	-7.2	-19.4	0.0	-36.0	-46.4	-31.0	11.5
경기소비재	1.4	1.0	-1.4	-8.2	-0.5	-7.4	-18.8	11.8	-58.8	-36.8	-73.7	13.2
필수소비재	1.1	0.4	-1.5	-7.8	-1.7	-6.7	-13.0	-18.2	-63.6	-45.5	-18.2	22.1
금융	0.9	1.0	1.8	0.1	-0.1	-1.0	-1.6	9.1	3.0	12.5	-53.1	7.7
IT	1.8	1.8	1.3	-1.9	-1.1	-8.2	-16.0	-20.0	20.0	20.0	-20.0	19.7
통신서비스	0.6	-0.4	0.9	0.9	-0.7	0.4	-0.4	25.0	-25.0	100.0	-50.0	12.1
유틸리티	1.7	1.9	5.9	15.8	0.3	1.4	5.0	37.5	-25.0	12.5	25.0	12.2

자료: IBES(2013. 01.10준), 카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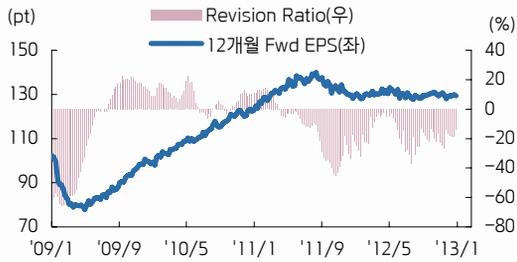
주: Revision Ratio, PER은 12개월 Forward EPS 기준

Revision Ratio = [(12개월 Forward EPS 상향조정 기업 수 - 하향조정 기업 수) / 총 기업 수]

중국 의료 업종은 Data가 없는 관계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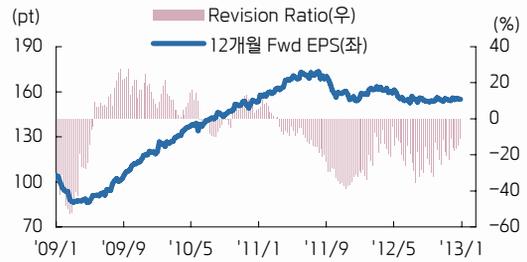
>>> MSCI 주요 지역별 12M Fwd EPS & Revision Ratio 추이

AC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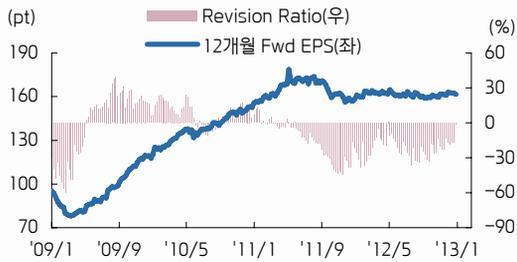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EMERGING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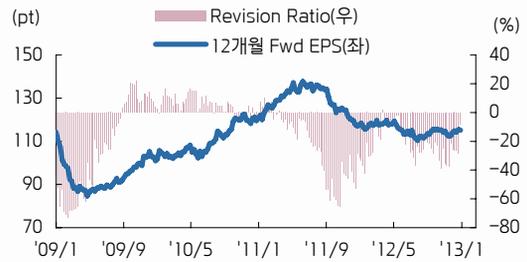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ASIA-PAC. EX 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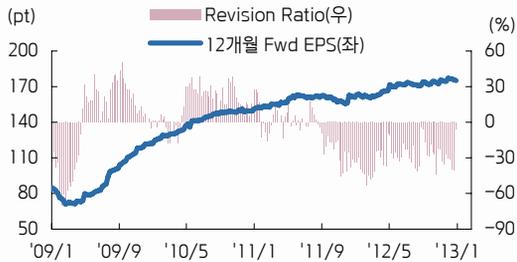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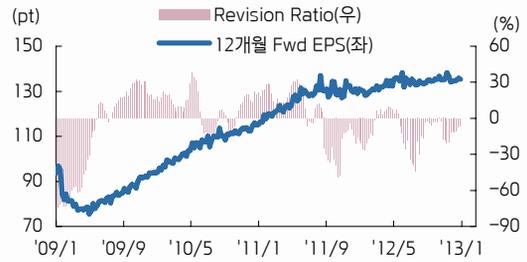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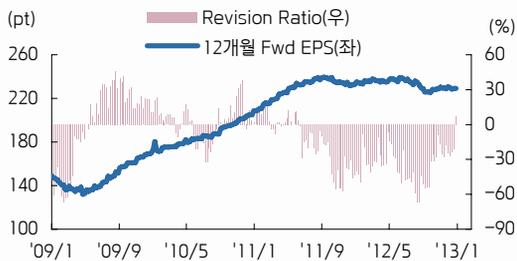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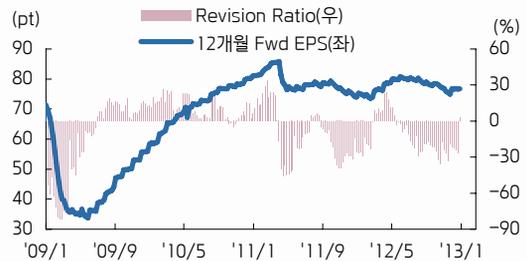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CHINA



자료: IBES, 키움증권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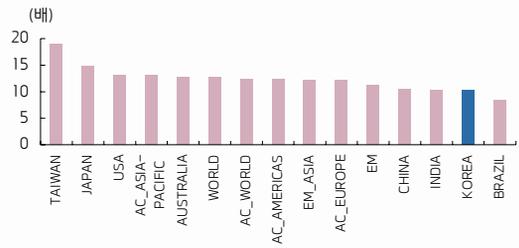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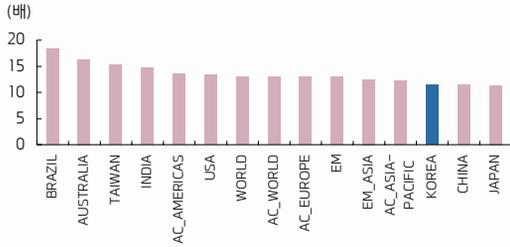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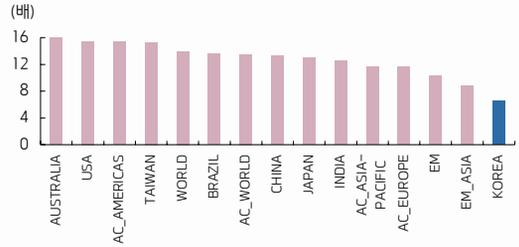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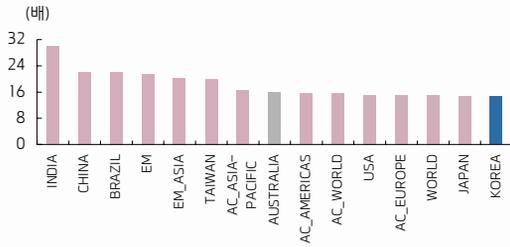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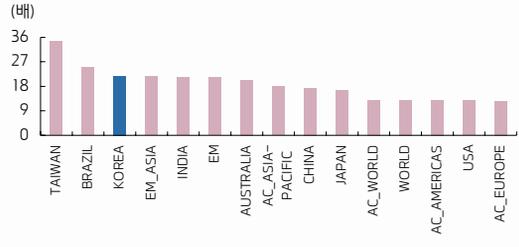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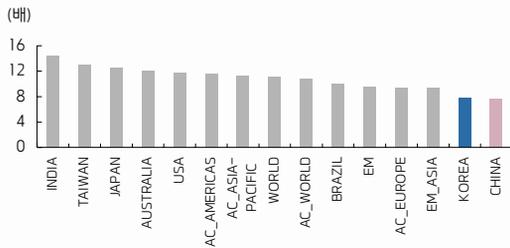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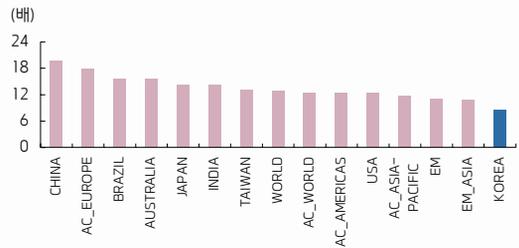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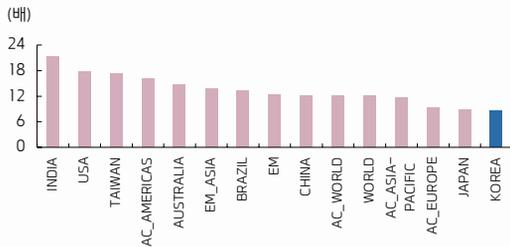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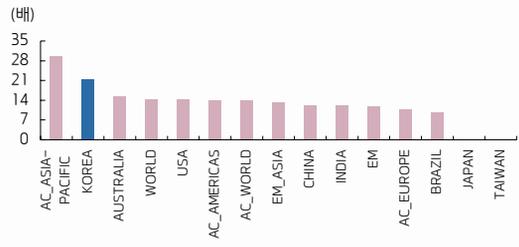
IT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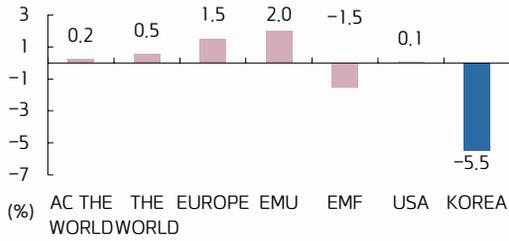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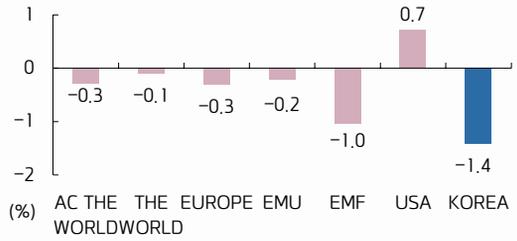
자료: IBES (2013. 01.10 기준)
 주 Taiwan 의료/유틸리티 업종 집계되지 않음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지수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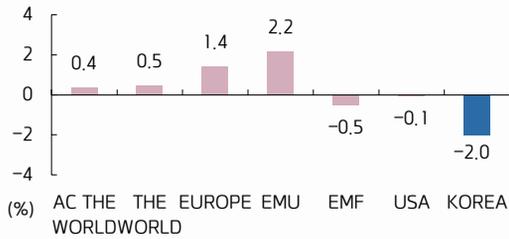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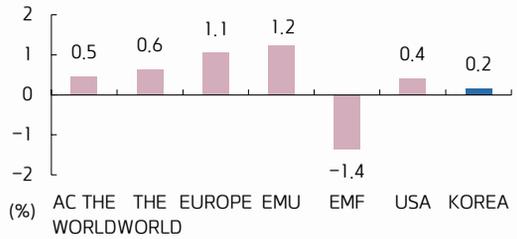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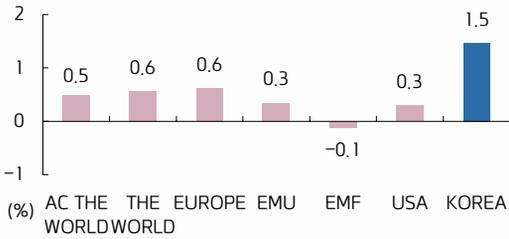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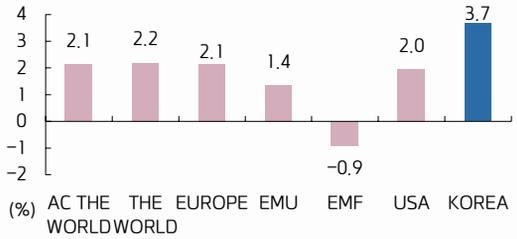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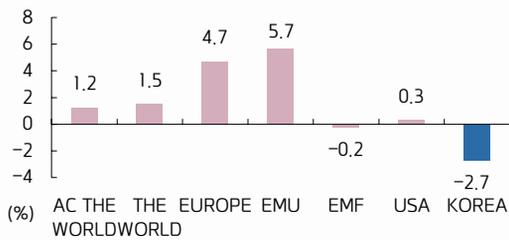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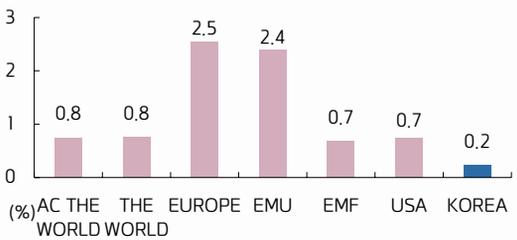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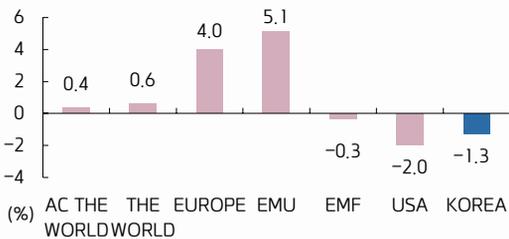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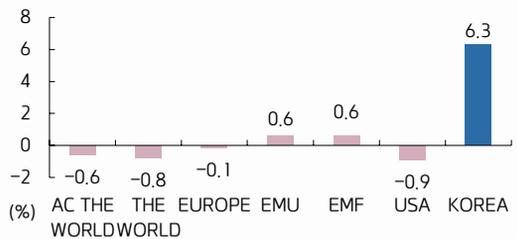
IT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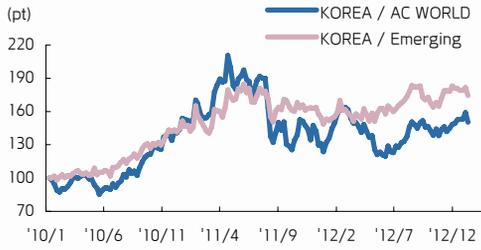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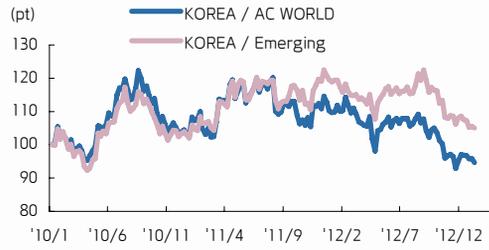


>>> MSCI KOREA 주요 시장대비 상대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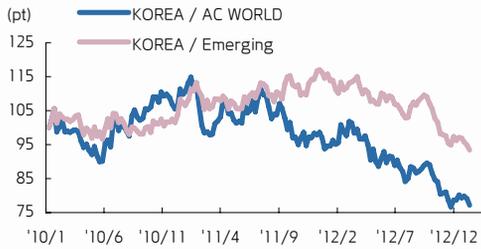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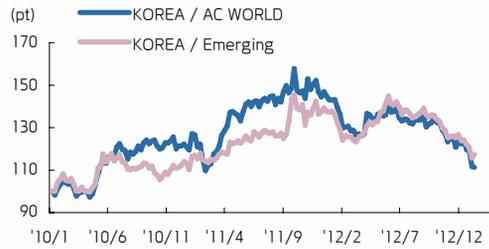
소재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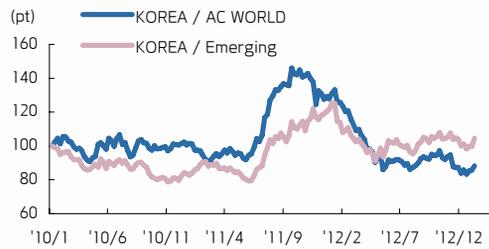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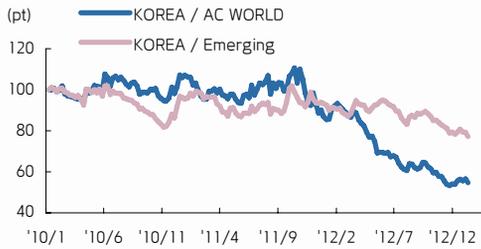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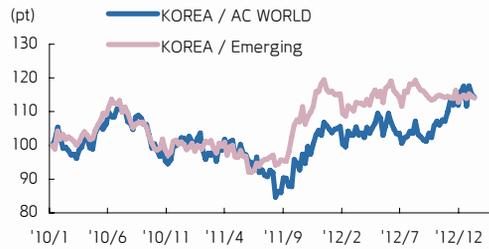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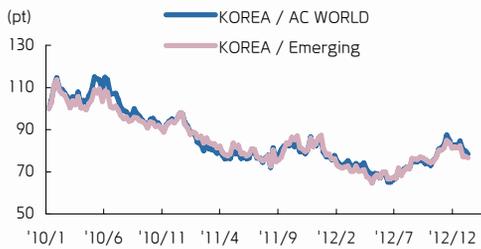
금융



IT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 해외 주요지수 · 종목 동향

주요국 지수	종가	D-1	D-5	D-20	주요 상품가격	종가	D-1	D-5	D-20
Dow	13,488.43	+0.13%	+0.40%	+1.83%	금(COMEX)	1,660.60	-1.04%	+0.71%	-3.26%
NASDAQ	3,125.64	+0.12%	+0.77%	+3.71%	천연가스(NYMEX)	3.33	+4.20%	+1.22%	-1.63%
S&P 500	1,472.05	-0.00%	+0.38%	+3.05%	알루미늄(LME,3M)	2,117.00	+0.38%	+1.34%	-0.80%
Semiconductor	402.86	+0.53%	+1.30%	+3.90%	전기동(LME,3M)	8,090.00	-0.74%	+0.37%	-0.13%
NYSE	8,712.40	-0.02%	+0.52%	+3.96%	아연(LME,3M)	2,036.00	-0.46%	-0.88%	-2.30%
NASDAQ 100	2,748.26	+0.15%	+0.87%	+2.76%	WTI(현물)	93.56	-0.28%	+0.50%	+7.83%
S&P 100	667.88	+0.04%	+0.48%	+2.67%	옥수수	708.75	+1.43%	+4.19%	-1.70%
S&P mid 400	1,057.91	-0.01%	+0.17%	+4.68%	설탕(NYBOT/ICE)	19.17	+1.11%	+1.70%	+3.40%
S&P small 600	492.06	-0.04%	-0.11%	+5.80%					
Russell 2000	880.77	-0.05%	+0.18%	+6.19%	한국 DR 및 환율				
영국	6,121.58	+0.33%	+0.52%	+3.32%	KB금융지주(ADR)	36.30	-0.22%	-1.09%	+6.30%
독일	7,715.53	+0.09%	-0.78%	+2.63%	신한지주(ADR)	37.02	-2.17%	-2.63%	+7.15%
프랑스	3,706.02	+0.08%	-0.64%	+1.64%	LG디스플레이(ADR)	13.95	-1.06%	-2.11%	-10.12%
일본	10,801.57	+1.40%	+1.06%	+13.37%	POSCO(ADR)	85.10	-0.50%	-1.83%	+6.38%
대만	7,819.15	+0.10%	+0.83%	+0.80%	SK텔레콤(ADR)	16.32	+1.30%	+2.06%	+2.26%
홍콩항셍	23,264.07	-0.39%	-0.29%	+4.21%	한국전력(ADR)	15.81	+2.66%	+7.48%	+26.58%
홍콩 H	11,842.59	-0.74%	-0.79%	+7.74%	KTI(ADR)	16.85	-0.88%	-3.05%	-3.99%
상하이종합	2,243.00	-1.78%	-1.49%	+8.11%	우리금융지주(ADR)	32.37	-1.43%	-6.42%	+4.22%
상하이A	2,348.10	-1.78%	-1.51%	+8.08%	삼성전자(GDR)	731.00	0.00%	+1.67%	+6.48%
선전A	924.68	-1.78%	+0.97%	+11.64%	삼성전자 우 (GDR)	410.00	+0.47%	+2.35%	+2.09%
태국	1,412.06	+0.43%	-0.32%	+4.24%	현대차 우 (GDR)	31.85	-1.39%	+1.76%	-6.32%
싱가폴	3,216.50	-0.30%	-0.27%	+2.39%	LG전자(GDR)	9.92	0.00%	-0.20%	+1.33%
인도네시아	4,305.91	-0.27%	-2.36%	+0.08%	롯데쇼핑(GDR)	17.80	-0.28%	-1.49%	+8.94%
러시아	1,572.00	+0.22%	+2.99%	+6.97%	STX팬오션(SGD)	5.94	+0.85%	+13.58%	+65.00%
인도	19,663.64	+0.00%	-0.61%	+2.26%	원/달러	1,054.69	-0.53%	-0.85%	-1.71%
멕시코	44,888.13	+0.06%	+0.73%	+3.95%	엔/달러	89.18	+0.45%	+1.17%	+6.78%
브라질	61,497.43	-0.29%	-1.64%	+3.80%	달러/유로	1.3343	+0.53%	+2.10%	+1.37%
한국	1,996.67	-0.50%	-0.76%	+2.01%	위안화/달러	6.2158	-0.14%	-0.24%	-0.48%

다우지수 구성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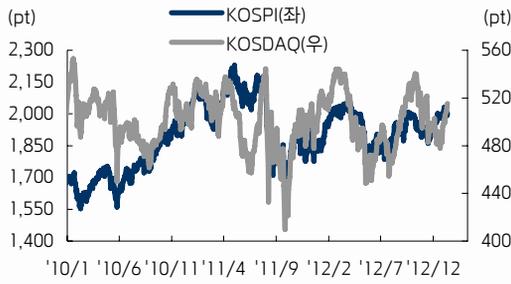
3M	96.28	-0.63%	+0.91%	+3.39%
Alcoa	8.94	-0.33%	-3.46%	+3.35%
Altria Group	32.70	+0.70%	+1.20%	-0.96%
American Express	61.24	+0.74%	+2.73%	+6.19%
AIG	35.80	-1.59%	-2.95%	+1.09%
AT&T	34.27	-0.29%	-2.72%	-0.64%
Boeing	75.16	-2.50%	-3.26%	-0.41%
Caterpillar	95.19	+0.12%	+0.28%	+8.23%
Citigroup	42.34	-1.14%	-0.21%	+12.82%
Coca Cola	36.91	-0.14%	-1.99%	-1.94%
Du Pont	46.15	-0.11%	+0.96%	+4.18%
Exxon Mobil	89.61	+0.57%	+0.73%	+0.18%
General Electric	21.13	-0.19%	-0.33%	-2.98%
General Motors	30.36	-0.26%	+1.67%	+18.45%
Hewlett Packard	16.16	-0.74%	+6.74%	+11.22%
Home Depot	63.70	+0.13%	+0.82%	+1.22%
Honeywell	35.23	-1.59%	-2.95%	+1.09%
IBM	194.45	+0.81%	+0.24%	+0.78%
Intel	22.00	+0.92%	+3.97%	+6.38%
J&J	72.35	+0.22%	+1.12%	+1.96%
JPMorgan	46.14	-0.02%	+1.72%	+7.88%
McDonald's	91.73	+0.36%	+2.04%	+2.71%
Merck	43.23	+1.05%	+3.10%	-4.49%
Microsoft	26.83	+1.40%	+0.19%	-1.51%
Pfizer	26.52	-0.90%	+2.16%	+3.96%
P&G	69.22	-0.07%	+0.19%	-2.18%
United Tech	85.18	+0.25%	+0.24%	+5.16%
Verizon	43.30	-0.67%	-2.26%	-3.33%
Wal Mart	68.63	+0.39%	-0.62%	-0.45%
Walt Disney	50.58	-0.41%	-3.08%	+1.89%

필라델피아반도체 구성종목 및 주요 기술주

AMD	2.67	+1.91%	+3.09%	+12.66%
Altera	35.27	+0.97%	+0.37%	+6.75%
Applied Materials	11.71	+0.60%	-0.85%	+5.59%
Broadcom	34.82	-0.03%	+1.10%	+1.40%
Cree	32.06	+0.63%	-6.69%	-6.28%
Intel	22.00	+0.92%	+3.97%	+6.38%
KLA-Tencor	49.19	+1.23%	+0.43%	+4.48%
LAM research	38.44	+1.56%	+0.97%	+6.63%
Linear Tech	35.73	-1.22%	+0.06%	+3.69%
Marvell Tech	8.62	+1.65%	+10.23%	+1.65%
MEMC	3.93	-2.96%	+6.22%	+23.20%
Micron Tech	7.54	+1.62%	+8.33%	+12.37%
National Semi	24.74	+0.20%	-0.12%	+0.57%
Novellus System	40.39	-0.47%	-6.16%	-10.44%
Sandisk	46.53	+2.04%	+2.35%	+7.51%
Semiconductor	7.94	-0.38%	+8.77%	+16.94%
Taiwan Semi	18.15	-0.17%	+1.06%	+6.39%
Teradyne	17.10	+0.83%	-1.16%	+3.01%
Texas Instrument	29.11	-0.78%	-1.32%	-3.64%
Xilinx	35.80	-0.56%	-1.92%	+0.31%
Apple	520.30	-0.61%	-1.27%	-3.47%
Ebay	53.70	+1.32%	+1.74%	+3.55%
Cisco	20.48	+0.20%	-0.01%	+3.80%
Dell	10.88	-1.45%	-0.82%	+2.93%
Research In Motion	13.56	+13.76%	+13.47%	+1.88%
Google	739.99	-0.20%	+0.27%	+6.08%
Nokia	4.70	+5.62%	+12.44%	+22.72%
Oracle	34.86	-0.14%	+0.72%	+9.14%
Qualcomm	64.90	+0.19%	+2.20%	+2.22%
Yahoo	19.29	+1.58%	-2.87%	-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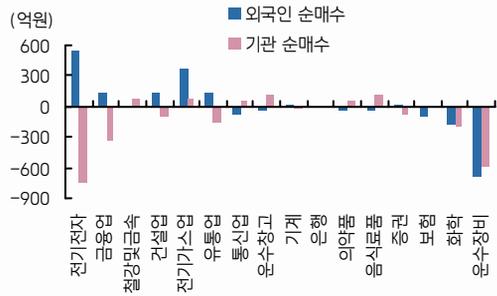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KOSPI vs KOSD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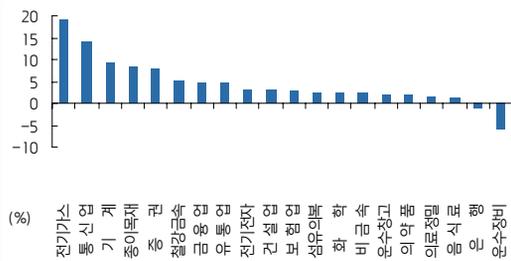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업종별 주간 기관 vs 외국인 순매수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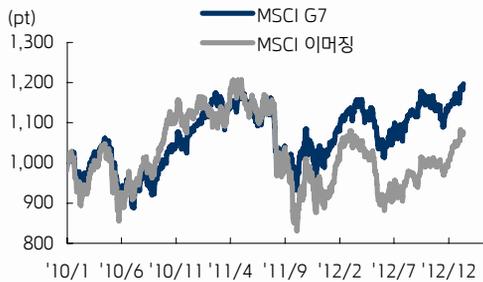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매수차익잔고 vs 매도차익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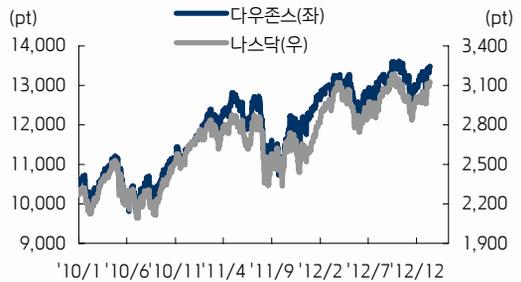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MSCI G7 vs MSCI 이머징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다우존스 vs 나스닥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닛케이 225 vs 대만 가권지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상하이 A vs Mumbai SENSEX 30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원/달러 vs 원/100엔



자료: CEIC, 키움증권

엔/달러 vs 달러/유로



자료: CEIC, 키움증권

미 국채 수익률 2년 vs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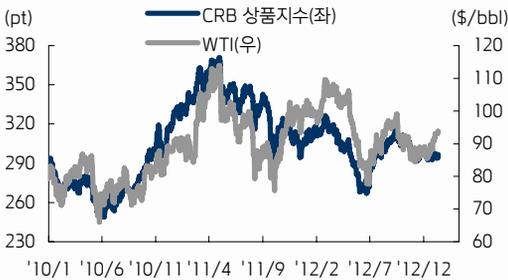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국고채 수익률 3년 및 회사채 AA- 수익률 3년



자료: CEIC, 키움증권

CRB 상품지수 vs WTI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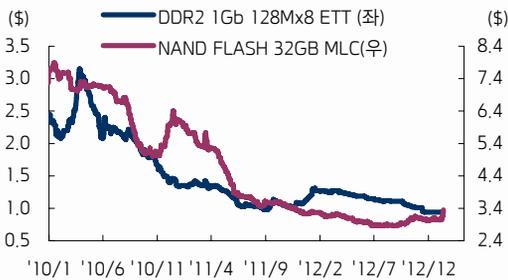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국제 금가격 vs 달러 인덱스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DRAM2 IGB vs NAND FLASH 32GB MLC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LME 전기동 3M vs LME 아연 3M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